

# HYUNDAI MOTORSTUDIO ART PROJECT

SPATIAL EXPERIMENT  
COLORED SPACE, COLORED LANDSCAPE

# SPATIAL EXPERIMENT

## [Credits]

Void Color Space/ RGB CMYK (2016)

Installation, Translucent colored acrylic plates, 12x8x5(h)m

천대광

오행도(五行道) 1 (2016)/ 내부미디어월, 4K, 6 minutes

천대광 | Concept & Direction

전지민 | Technical Implementation

지미세르 | Sound

오행도(五行道) 2 (2016)/ 외부미디어월, 4K, 12 minutes

천대광 | Concept

최찬숙 | Video

지미세르 | Sound

Opening performance/ 빛의 근원과 확산, Audio visual performance (VJ performance)

천대광 | Concept

프라텐스튜디오(Pratenstudio) | Performance

## SPATIAL EXPERIMENT: Colored Space, Colored Landscape

현대자동차의 실험 정신과 예술가의 공간 실험이 만나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현대자동차의 실험 정신이 담긴 브랜드 체험공간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함께 현대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첨단기술과 산업의 결정체인 자동차를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문화적 매개체로 승화시킴으로써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성과 경험을 촉발시키고 교류하게 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의 건축물은 육각형의 평면도 위에 자동차의 주재료인 철재를 이용한 철판과 철 파이프로 디자인되고 외벽이 전면 유리로 마감되어 철재의 모노톤과 유리의 투명성이 특징적인 공간이다. ‘스튜디오’로 명명된 1층 전시공간은 삼면 유리벽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어 안과 밖의 공간을 연결하며 자연광이 가감 없이 유입되고 실내의 다른 공간으로도 열려 있는 폐쇄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전시공간의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한 스케일의 미디어월은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의 수용을 통해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중첩되는 ‘미디어 공간(media-space)\*’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

천대광 작가는 지금까지 모색해 왔던 공간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의 공간적 건축적 특징과 환경에 반응하며 작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과 풍경을 구축하여 색다른 감각적 지각과 경험의 장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 미디어 공간(media-space)의 개념은 다음의 글에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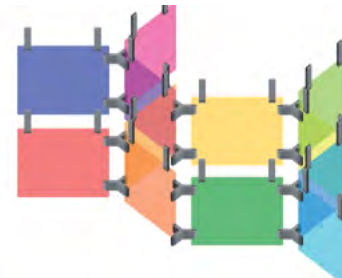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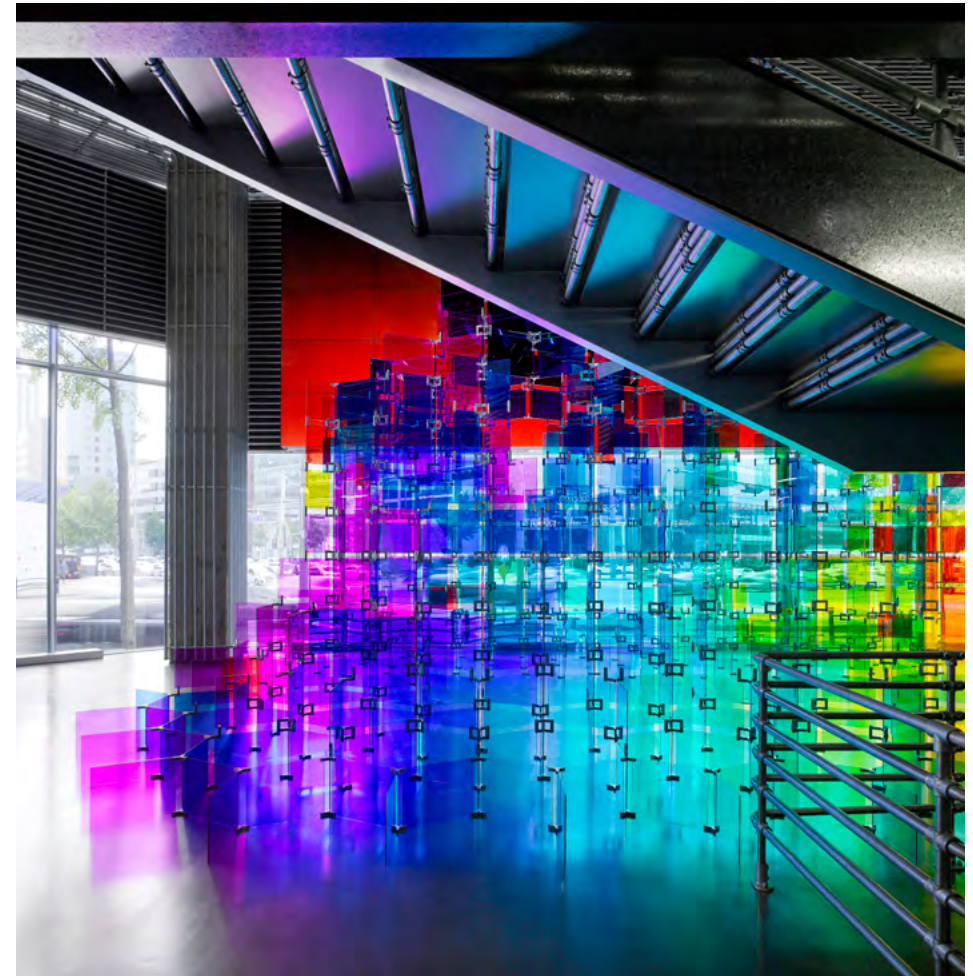
“미디어 공간(media-space)”이란 “비디오, 컴퓨터와 같은 현대의 전자미디어를 매체로 현실(real)과 가상(real)이 상호 중첩되어 시간과 거리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어떤 불확정적인 상태의 공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권태일, 투명성의 공간에서 미디어의 공간으로 - 현대 예술과 건축에 나타난 공간개념의 변화경향,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7, p.71



## Void Color Space / RGB CMYK 설치작업

전시공간을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설치작업  
 “Void Color Space”는 다른 색으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기본 색인 빛의 3원색(Red, Green, Blue)과 색의 3원색(Cyan, Magenta, Yellow)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 총 8색의 반투명 컬러 아크릴판 천여 장이 알루미늄 고정체로 결합되어 축조된 구조물이다. 아크릴판들은 하나의 축에서 각 120도 세 방향으로 결합되어 기본 유닛을 구성하고, 이 기본 유닛들이 벌집 형태의 육각구조로 결합되고 이 육각구조들이 다시 연속적이고 다중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체 구조물을 완성한다. 주재료의 기본 형태를 수평적, 수직적으로 집적하거나 교차적으로 직조하여 기본 형태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확장으로 공간을 조직화하는 방식은 작가의 다수의 작업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육각형 구조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구조인 동시에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현대 모더니즘 서울 건축물의 육각형의 평면도와도 형태적인 유사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구조물은 주재료의 기본 형태 사이사이에 틈(빈 공간)을 두는 직조 방식으로 혹은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외부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개방적인 구조를 갖기도 하지만, 구조물 자체의 외형은 완결된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본 유닛들이 결합되어 다면체의 거대한 내부 공간을 형성하지만, 기본 유닛들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층의 레이어를 이루며 조직화되면서 외형이 완결되지 않고 공간적 상황에 따라 무한히 증식, 확장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

다각도와 다층의 레이어로 축조된 컬러 아크릴판들은 서로 중첩되면서 계절과 날씨, 하루의 변화에 상응하여 유리벽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는 빛(자연광)의 양과 방향, 움직임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구조물의 주재료인 컬러 아크릴판의 투명성은 현대 모더니즘 서울 건축물의 외벽 유리 재료의 투명성을 반영, 강조하고, 유리벽을 통해 유입되는 빛은 컬러 아크릴판에 투사되고 반사되면서 다채로운 색의 변조와 지각을 가능하게 한다. 빛과 색, 물질을 통합하는 작가의 공간 실험은 변화무쌍한 색과 빛으로 충만한 압도적인 색채 공간을 창출하고, 이는 현대 모더니즘 서울 건축물의 모노톤과 극적이면서 조화로운 대비를 이룬다. 작가의 공간 실험에 참여한 관람자는 공간 내부를 둘러보고 움직이면서 컬러 아크릴판들이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무수한 색과 색의 변조들을 지각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시각적 혼돈을 경험하며 일상의 무더진 감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기본 색으로 이론상 존재할 수 있는 무수히 다양한 색을 발생시키는 이 색채 공간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근원이 되는 기본 요소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우주적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oid Color Space/ RGB CMYK (2016)

Installation  
 Translucent colored acrylic plates  
 12x8x5(h)m 천대광



## 오행도(五行道) 1, 2 영상 작업

영상 작업 “오행도(五行道) 1, 2”는 작가가 천착해온 동양적 철학과 세계관을 반영한 ‘오행론(五行論)’을 색과 형태, 움직임을 통해 시각화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에서 출발한다. ‘음양론(陰陽論)’을 바탕으로 성립된 ‘오행론(五行論)’은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 및 만물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오행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동북아시아의 사상체계를 지배했던 자연 철학의 일종이며 세계관이다. ‘음양오행론’이 완비된 이후 유교문화권에서는 계절·방위·색(色)·맛·음(음) 등 모든 대상과 현상을 오행의 논리에 따라 5가지로 분류, 배당하게 된다. ‘오방색(五方色)’은 오행<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여러 상징성 가운데 ‘동, 서, 남, 북, 중앙’의 5방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5색이 오행에 따라 배당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끝없이 성장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나무(木)의 색은 푸른색 계통의 청색(靑色), (2) 항상 위로 향하고 뜨거운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火)의 색은 붉은색 계통의 적색(赤色), (3) 땅을 상징하는 흙(土)의 색은 노란색 계통의 황색(黃色), (4) 각종 금속에서 반사되는 금속(金)의 빛은 흰색 계통의 백색(白色), (5) 깊게 고여 있는 물(水)의 색은 검은색 계통의 흑색(黑色)”. ‘오방색(五方色)’은 다음과 같이 오행의 원리에 따라 계절과도 연계 된다 : 목(木)=청색=봄, 화(火)=적색=여름, 토(土)=황색=환절기, 금(金)=백색=가을, 수(水)=흑색=겨울. “오행도(五行道) 1”은 ‘오행상생론(五行相生論)’과 ‘오행상극론(五行相剋論)’의 원리를 바탕으로 흑→적, 적→백, 백→청, 청→황, 황→흑, 흑→청, 청→적, 적→황, 황→백, 백→흑의 순서로 5색의 점차적인 전이(轉移)를 각각 30초 단위의 신(scene)으로 분할하여 총 360초(총 6분)의 길이로 루프(loop)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이와 순환의 색채 풍경은 계절이 봄(木), 여름(火), 늦여름/환절기(土), 가을(金), 겨울(水)의 순서로 순환하듯이 만물이 생장소멸(生長消滅)하고 순환하는 우주적 질서를 상징한다.

“오행도(五行道) 1”이 5색과 사운드만을 사용하여 전이와 순환의 우주적 질서를 추상적이고 평면적인 색채 풍경으로 번역했다면, “오행도(五行道) 2”에서 이 색채 풍경은 다양한 형태와 움직임을 통해 확장된다. 오행(계절)에 각각 5개의 신(scene)이 배정되어 총 20개의 신(scene)으로 구성된 “오행도(五行道) 2”는 오행(계절)의 속성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점과 선, 원(圓), 방(方), 각(角)의 기본 형태들이 다양한 움직임, 속도와 리듬, 색 그리고 사운드와 결합, 변주되면서 삼차원적인 공간감을 창출하며 오행(계절)의 전이와 순환을 복합적인 시각적 구조로 제시한다. “오행도(五行道) 1, 2”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자리한 혼잡한 도시 환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행자와 관람자들)을 관조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이끈다. 설치작업 “Void Color Space”가 재료의 물성과 비물질적인 빛을 이용해 실제 전시공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색채 공간을 구현했다면, 미디어월에 제시된 영상 작업 “오행도(五行道) 1, 2”는 매체예술의 특성인 시간성에 기반하여 색과 형태, 움직임의 변화와 반복을 통해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색채의 풍경을 구축한다. 작가의 공간 실험은 물질과 비물질(빛과 사운드), 정(靜)과 동(動),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통합하면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새로운 감각의 장으로 전이(轉移)시킨다. 이곳에 들어선 관람자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의 혼재 속에서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이고 공감각적인 새로운 지각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주적 메커니즘과 자연 순환의 원리를 사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감각적 자극이 자신의 감성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며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곽소연 큐레이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원)


\*\* 아래에 서술된 ‘오방색(五方色)’과 ‘오행(五行)’의 원리는 다음의 글에서 인용 : 우실하, [Reading of Oriental Civilization / 동양의 눈으로 동양 읽기 5] 음양오행론과 오방색, 오간색 : 지하철 노선도 유감(?), 미술세계, 2008, 5월호, p.150.

## 영상 작업 오행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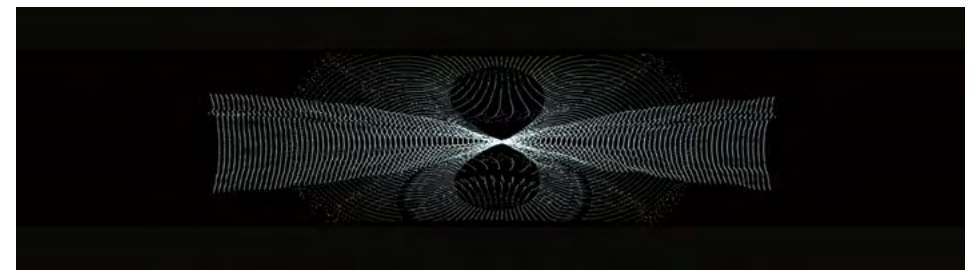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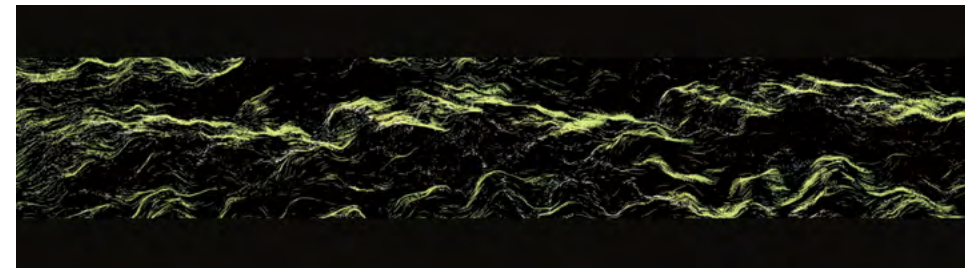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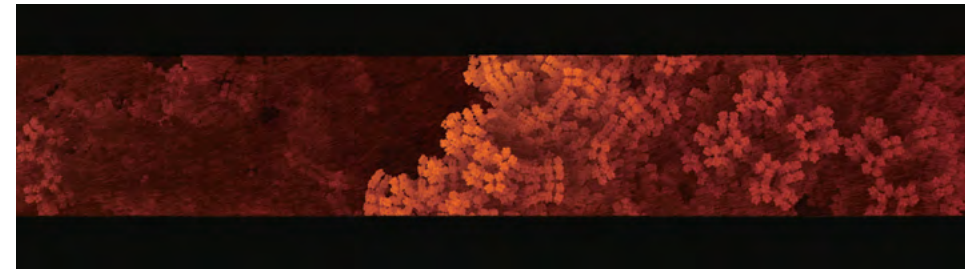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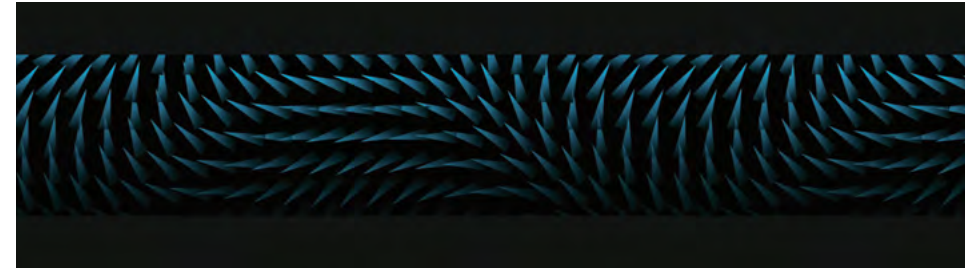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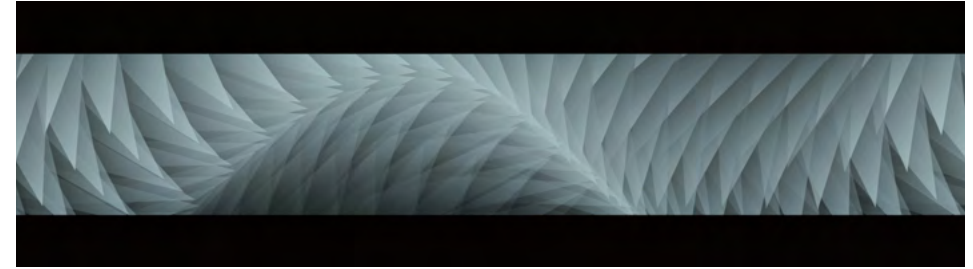
이번 천대광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오행도 영상시리즈를 작업한 최찬숙 작가는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영상, 설치, 공연, 아트북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미디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작가는 각 예술장르의 경계를 융합하는 인터미디어 작업을, 매 프로젝트마다 제작팀원을 꾸려서 그만의 독특한 서사적 기반을 형태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녀의 학제적인 프로젝트들은 음악과 음향, 춤과 움직임, 시간과 공간을 융합함으로써, 관객이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고 사라진 듯 했던 파편적 공간들을 다시 열어내게 한다. 이번 작업은 음양의 기본이 되는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이 다섯가지 에너지 작용과 그 속성이 만들어 내는 상생적 에너지의 기본 작용을 118개의 도트(Dot)를 기본 요소로 각각의 함수값으로 풀어낸 영상작업이다. 최찬숙 작가는 음(陰)과 양(陽)의 확장과 소멸에 따라 운용되는 우주의 자연현상의 기본에 정착해, 각 기운들에 의해 생성되는 오행을 현대 물리학과 대입하여 음과 양에 해당하는 입자와 반입자를 기본 움직임으로 설정하였다. 빛의 입자와 파동과 함께 입자의 운동이 가지는 네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되는 함수적 움직임(삼각함수, 프랙탈, 펄린노이즈, 정다면체, 중력)을 통해 목.화.토.금.수로 운행되는 오행기운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미디어아티스트  
최찬숙 [www.chansookchoi.com](http://www.chansookchoi.com)

영상팀  
전지민 | Field operator  
제레미아 볼커 | Generative Design  
디미타르 르제브 | Additional Programming

이 영상은  VEZÉR 프로그램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찬숙 작가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실험미디어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비디오아트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하였다. 2008년 비블리아트와 페르가몬미술관이 주최한 국제 미디어 아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09년 베를린시의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나뭇그(Nafog) 프로젝트 지원 작가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독일 미술계의 잇따른 인정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국내에서는 2010년 갤러리쿤스트독 개인전에 이어 2010년 서울문화재단의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NArT)에 선정되어 남산 예술센터에서 주최한 《페스티벌 場》초대작 <Private Collection>을 통해 국내 관객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2012년 성곡미술관 “내일의작가”, 갤러리 loop의 “신진작가상”을 수상하면서, 국립극장, 뉴욕 퀸즈뮤지엄, 사천 갤러시현대미술관에서의 공연 및 전시 등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프닝 퍼포먼스

### 빛의 근원과 확산

프라텐스튜디오는 기획자, 작가, 디자이너, 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젊은 아티스트들의 집단이다. 네덜란드어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라텐스튜디오는 미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대중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학교도 전공도 다른 네명의 젊은이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전시, 공연, 설치를 넘나들며 프라텐만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천대광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를 맡은 프라텐스튜디오는 설치, 공연을 넘나드는 미디어 팀으로서, 이번 오프닝 퍼포먼스의 주제는 '빛의 근원과 확산'이다. 빛은 색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집합체다. 따라서 천대광 작가 오프닝 퍼포먼스는 빛을 응축하고 다시금 빛을 풀어내는 미디어설치공연으로 구성되었다. '음과 양'을 컨셉으로 공연을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오프닝 퍼포먼스에서 1부는 '음'의 세계를 2부는 '양'의 세계를 설치공연으로 풀어내었다. 모터제어와 프로젝션 맵핑, VJ가 결합된 퍼포먼스는 천대광 작가의 작업을 시청각적으로 관람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 약력 Biography

조각, 설치, 건축적 영역을 넘나들며 작업해온 천대광 작가는 예술적 개입과 실천이 실현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고찰과 탐구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전시공간의 물리적, 공간적, 건축적 특성이나 전시공간이 위치한 장소의 지형적, 지질학적, 자연적 환경, 때로는 그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접속하면서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인 작업 방식과 전략을 취한다. 여기서 전시공간이란 갤러리나 미술관 등의 소위 미술 제도적 공간과 공원과 같은 야외 장소나 공공적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인해 매 전시마다 새로운 전시공간과 장소에 대한 고찰과 탐구에 기반 하여 제작된 구조물 “반딧불의 집 (2007)”, “뒤틀린 공간 (2008)”,

“격자무늬 터널 (2009)”, “메신저 (2009)”, “어두운 기억들 (2011)”, “건축적 설치 (2011)”, “잃어버린 지평선-상그릴라 (2012)”, “RPVC (2013)”은 그 자체로 관객이 이동하며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작품과 관객, 전시공간/주변 환경과 구조물, 안과 밖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며, 전시공간(건축적 공간) 자체와 주변 환경을 일상적인 지각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새롭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한다. 장소특정적이고 장소의존적인 상술한 작업군과는 차별적으로 작가의 공간에 대한 탐구와 실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건축 재료에 대한 관심과 인공적, 자연적 공간과 장소에 대한 심미적,

감성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작가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참조점들(references)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전개된다. 이런 형태의 작업군은 전시공간 자체의 물리적, 건축적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작가의 구조물이 전시공간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하나의 새로운 감각적 공간을 구축하거나, 전시공간 자체를 하나의 생경한 풍경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작업의 예로 “풍경 (2010)”, “집, 통로 그리고 출구 (2013)”, “당산나무 (2015)” 등을 꼽을 수 있다.

(곽소연 큐레이터 텍스트 中 발췌)



